

“반도체 인재 키우자”...지역 대학도 ‘분주’

정부가 광주특별시를 새로운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맞춰 학과 개편과 정원 확대, 산학협력 강화 등을 잇달아 추진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일 광주특별시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은 반도체 산업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대학 경쟁력은 물론 지역 인재 양성 체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우수 인재를 지역에 붙잡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 학생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대학교는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맞춰 지역거점국립대로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에너지신산업과 반도체첨단패키징, 미래 모빌리티 등을 중심으로 한 ‘(가칭) 첨단 산업융합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기업에 교육과정 설계부터 연구개발까지 참여하는 산학 밀착형 교육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등록금 전액 면제와 생활비 장학금, 기숙사 우선 배정 등 학생 지원도 확대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연구 중심 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와 디팩트 창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 성과가 실제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술 사업화와 디팩트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남권 반도체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삼성·SK 호남 투자 맞춰 학과 개편·정원 확대 등 속도 전남대 첨단산업융합대학 신설·GIST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반도체 전문인재 10만 명 양성”

조선대학교는 2027학년도부터 광기술 공학과를 반도체공학과로 개편해 반도체 특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호남대학교는 AI 특성화대학으로 축적한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융합형 실무인재 양성에 나선다. 2027학년도부터 학생이 전공과 다양한 교육 트랙을 자유롭게 조합하는 ‘HOPE(Honam Open Path Education) 다중트랙 교육과정’을 도입해 AI를 기반으로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융합형 인재를 육

성할 계획이다. 동신대학교도 2028년 개설을 목표로 반도체융합학부(가칭)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공동 대응에도 나섰다.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는 최근 대외협력추진위원회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프로젝트’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적극 환영했다. 협의회는 “광주·전남 21개 대학이 연대해 반도체 전문인재 10만명 양성에 힘을 모으고, 연구개발부터 현장 실무교육까지 유기적인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 생산시설과 협력기업이 들어서면 대졸 졸업 후에도 광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방대 진학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광주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최모(45)씨는 “예전에는 좋은 공대에 가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대학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까운 곳에서 공부하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함께 장기적인 교육·연구 기반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남대 공대 A교수는 “지역에는 우수한 학생과 연구 인력이 있었지만 산업 기반이

부족해 결국 수도권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지고 외부 인재를 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학이 특정 산업의 흐름만 따라가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기초학문과 원천기술 연구가 함께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공대 B교수는 “생산공정만 들어선다고 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기업 투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광주가 지속 가능한 반도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소통’ 내세운 첫날 문 잠근 ‘불통 복구청’

취임식 직전 청사 누수로 행사 취소...대회의실 출입 통제

‘소통 행정’을 약속한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 복구청장이 취임 첫날부터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 장맛비로 청사 누수가 발생해 취임식이 취소된 가운데 복구가 현장 출입을 통제, 청사 관리 부실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복구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내린 장맛비로 청사 3층 대회의실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다. 전날부터 취임식을 준비했던 복구부는 당일 누수를 확인한 뒤 안전을 이유로 취임식을 취소했다.

복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했으나 방수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청장은 취임식을 취소한 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용강동과 드론공원, 구 산동고, 신안동 등 침수 취약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복구부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복구는 “누전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대회의실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반면 같은 층 의회사무과와 다른 부서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직원들은 현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내거나 바닥에 고인 물을 치우는 작업을 이어갔다.

청사관리팀엔 빗물에 젖은 천장 패널과 조명을 철거하고 대형 비닐과 양동이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막는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청사 누수 상황이 외부

에 알려지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복구 주민은 “취임 첫날 청사에서 물이 새다면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대책을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문부터 잠그는 모습은 주민들에게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새 구청장이 소통을 강조했는데 첫날 대응은 오히려 투명성과 거리가 있어 보였다”며 “작은 일부터 공개하는 것이 신뢰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신 구청장이 당선 직후부터 강조해 온 ‘소통 행정’과도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원회 ‘주민권선도시 으뜸복구 준비위원회’는 주민 정책제안 플랫폼 ‘복구특목’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오는 6일부터는 27개 동을 순회하는 ‘구청장 현장 소통데이’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복구는 출입 통제는 현장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복구 관계자는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떨어질 우려가 있었고 전기시설도 켜져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응급 복구를 진행하는 동안 사고 예방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복구청장도 “취임 첫날 침수 취약지역 현장점검을 하느라 청사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gwangnam.co.kr



장마철 대비 상습침수지역 점검 1일 오전 광주 서구 농성동 일원에서 김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복구청장이 차수관 설치 현장 등 위기 대비 상습침수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배재고 “직접 사과 계획”...광주일고 “준비 안돼”

심리 안정 등 이유...대한야구협,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제일고 측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시험기간 일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광주제일고는 사과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배재고 측은 이날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지난달

29일 청풍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발생한 지역 비하성 응원과 관련한 내용을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광주제일고는 시험기간 일정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방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있다”면서 “양측 협조와 협의에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역사

인식과 인성교육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 선수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고 제지해야 할 학교와 지도자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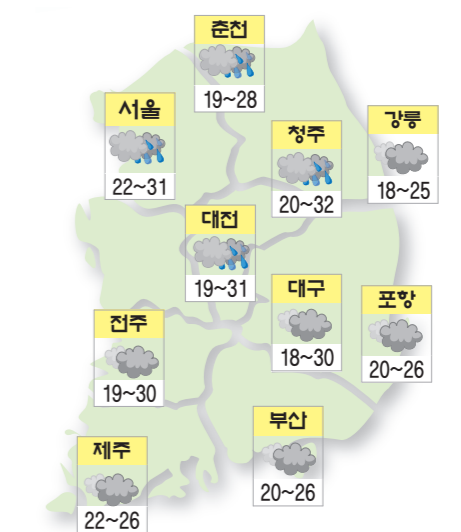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대중 광주특별시교육감은 “학생 스포츠 현장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날 광주제일고를 찾아 학생들을 위로했다.

한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이날 ‘제 1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배재고에 대해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22 / 달림 21:36
 맑음 19:51 / 달림 07:01



광주	20~30
목포	21~28
여수	19~26
순천	20~27
구례	19~29
광주	20~27
원도	20~27
전남	20~25
고흥	20~27
진도	19~26

목포	밀물(고)	03:49 / 15:32
	썰물(저)	09:06 / 20:52
여수	밀물(고)	10:16 / 22:57
	썰물(저)	04:31 / 16:15

광주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

○새벽시간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담배꽂초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

1일 전남광주 서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분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1층 출입구 계단 옆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3분 만에 오전 4시17분 불길들을 잡았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져.

화재로 1층 출입구 계단 외벽이 일부 타거나 그늘막 소방 추산 2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소방당국은 담배꽂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

소방 관계자는 “담배꽂초 부주의 화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재난이다”며 “일상 속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가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 송태경 기자 sty1235@

공영주차장 5부제·2부제 해제 첫날

빼곡해진 주차장·골목길...다시 ‘주차대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 주차대란입니다.”

1일 오전 8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 서구청. 이날 민선 9기 출범과 통합특별시 출범 첫날이 겹치면서 이른 시간부터 많은 차량들이 몰렸다.

청사 정문에는 ‘5부제 3·8 차량 통제’와 ‘행사’ 안내 간판이 설치됐고, 청원경찰들은 출근 시간대 몰려드는 차량의 번호판을 3·8번을 일일이 확인하며 행사 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구분하기 어려워 차량마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일시적인 정체가 빚어졌다.

차량 5부제 해제가 모든 차량에 적용

번호 확인 등 교통 통제...통근버스 이용자 소폭 감소

오전 7시40분 만차·이중주차도...직원 조기 출근 영향

된 것으로 착각한 일부 직원들은 차량을 다시 돌려기도 했다.

이날은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는 직원들도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 당시에는 직원 전용 주차장에 오전 8시 40분까지 빈자리가 남아 있었지만, 이날은 오전 7시40분께 이미 차량들로 빼곡히 들어찼다.

청원경찰은 “이전과 다르게 출입 차량이 크게 늘었다”며 “주차장이 일찍감

치 가득 차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청사 주변 골목과 이면도로는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했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3·8번인 기존 5부제 대상 차량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반 차량의 주차장도 크게 늘었다.

직원들의 출근 편의를 위해 운행한 무료 통근버스 이용객도 다소 감소했다.

홀짝제가 적용된 지난달 30일까지는 하루 평균 30여명이 통근버스를 이용했



1일 광주특별시 서구청 입구에서 주차 통제가 이뤄지자 주변 골목에 차량 주차자가 급증했다.

지만 이날은 2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인근 농성동 공영주차장도 일찍감치 빈자리가 사라졌고, 이중주차 차량들도 가득 찼다.

남구청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하주차장은 민원인과 직원 차량으로 가득 찼고, 자리를 찾지 못한 차량들은 주변 골목으로 분산되면서 혼잡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새 을·온나라 시스템과 행정전자서명 인증

서(GPKI) 등 전산 시스템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면서 주차 수요가 급증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재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자위안보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글·사진=송태경 기자 sty1235@